

# ‘是……的<sub>2</sub>’ 구문의 통사적 특징과 오류분석

전기정\*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是……的<sub>2</sub>’ 구문의 특징
  - 2.1 각 구성성분의 특징
  - 2.2 ‘是’의 생략
  - 2.3 목적어의 위치
  - 2.4 ‘了’자문과의 비교
3. ‘是……的<sub>2</sub>’ 구문의 오류분석과 교육방안
  - 3.1 ‘的’의 누락
  - 3.2 ‘是’의 누락
  - 3.3 ‘了’의 대체
  - 3.4 ‘是……的<sub>2</sub>’ 구문의 교육방안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是……的’ 구문은 중국인의 사용빈도가 높으면서도 한국인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구문 중의 하나이다.<sup>1)</sup> ‘是……的’ 구문의 종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 鮮文大學校 中語中國學科 副教授

1) ‘HSK 작문말뭉치(HSK動態作文語料庫)’에 나타난 한국인의 문형 오류 중 ‘是……的’ 구문의 오류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졸고(2014)에서 이미 각 ‘是……的’ 구문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류율이 높은 ‘是……的<sub>3</sub>’ 구문에 중점을 두어 그 오류의 양상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전기정(2014)을 참고하기 바람.)

분류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대략 세 가지로 구분된다.

- I. 他的衣服是紅的。(그의 옷은 빨간 색이다.)
- II. 他是去年畢業的。(그는 작년에 졸업했다.)
- III. 提前兩天完成任務是可能的。(이틀 당겨서 임무를 완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유형 I 과 같이 주어의 종류나 속성에 대해 설명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의미 특징을 가지며, 是와 的을 모두 생략할 수 없는 是……的 구문을 是……的<sub>1</sub> 구문이라고 하고, 유형 II와 같이 과거에 일어난 일의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원인, 목적, 방식 등을 부각시킬 때 사용하며, 是는 생략할 수 있으나 的는 생략할 수 없는 是……的 구문을 是……的<sub>2</sub> 구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유형 III처럼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며, 是만 생략하거나 是와 的를 동시에 생략할 수 있는 是……的 구문을 是……的<sub>3</sub> 구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유형 중 중국어 교재에서 일반적으로 강조구문으로 설명하고 있는 是……的<sub>2</sub> 구문은 是……的<sub>3</sub> 구문에 이어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가 높게 나타나는 구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是……的<sub>2</sub> 구문을 포함한 전체 是……的 구문에 관한 연구도 중국에 비교하면 미흡한 편이다.

是……的 구문에 대해 중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是……的 구문을 분류하고 그 구조를 분석한 통사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로는 宋玉柱(1978), 趙淑華(1979), 年玉萍(2000) 등이 있다. 그 중 宋玉柱는 是……的 구문을 구분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 강조를 나타내는 경우,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었고, 趙淑華(1979)는 是……的 구문에서 是와 的가 맡은 역할에 근거하여 세 가지 구조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에 반해 徐靜茜(1984)과 楊石泉(1997)은 是……的는 판단의 일종이므로 是……的 구문의 독립성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田泉(1996)은 是……的 구문에서 是와 的를 따로 사용했을 때와 같이 사용했을 때를 비교했고, 牛秀蘭(1991)은 是……的 구문 중의

목적어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그 외에도 張寶林(1994), 韓梅(2004)는 ‘是……的’ 구문의 중의 현상에 대해 연구했고, 呂文華(1982)와 杉村博文(1999)은 각각 ‘是……的’ 구문을 ‘被’자문, ‘了’자문과 비교했다. 다음으로 ‘是……的’ 구문에 대한 화용적인 방면의 연구로는 潘允中(1982), 李訥 等(1998), 杉村博文(1999), 倪蘭(2002), 王光全(2003), 李海燕(2006)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是……的’ 구문에 관해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 국내에서 ‘是……的’ 구문을 이론적 측면에서 다룬 논문으로는 정현애(2008), 한재균(2009), 김지나(2012) 등이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是……的’ 구문을 다룬 논문으로는 김선희(2013)<sup>2)</sup>, 전기정(2014) 등이 있다.

그러나 ‘是……的<sub>2</sub>’ 구문은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어법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是……的<sub>2</sub>’ 구문의 오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是……的<sub>2</sub>’ 구문의 통사적 특징에 관해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인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是……的<sub>2</sub>’ 구문의 오류 유형과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초보적으로 ‘是……的<sub>2</sub>’ 구문의 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是……的<sub>2</sub>’ 구문의 특징

### 2.1 각 구성성분의 특징

‘是……的<sub>2</sub>’ 구문은 동작이 과거에 이미 발생했거나 완료된 상황에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화자가 ‘是……的<sub>2</sub>’를 사용할 때 부각시켜 표현하고자 하는 중점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발생이 아니라 동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방식, 목적, 원인, 조건, 대상, 시사자, 수사자 등이다.

2) 김선희(2013)는 교재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是……的<sub>2</sub>’ 구문의 지도방안을 제시했다.

- (1) 我們是兩點半出去的。(우리는 두시 반에 나갔다.)
- (2) 我是在售票處買的票。(나는 매표소에서 티켓을 샀다.)
- (3) 我是坐火車來的。(나는 기차를 타고 왔다.)
- (4) 他是爲了考研來北京的。(그는 대학원시험을 치기 위해 베이징에 왔다.)
- (5) 他是跟媽媽一起來的。(그는 엄마와 함께 왔다.)
- (6) 它是在虧損狀態下運轉的。(그것은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 돌렸다.)
- (7) 他臉紅是海風吹的。(그가 얼굴이 빨간 건 바닷바람이 불어서이다.)
- (8) 是小王告訴我的。(샤오왕이 나에게 알려준 것이다.)
- (9) 我是買的蘋果, 不是買的橘子。(나는 사과를 샀지 귤을 사지 않았다.)

위의 예문(1)은 시간, (2)는 장소, (3)은 방식, (4)는 목적, (5)는 대상, (6)은 조건, (7)은 원인,<sup>3)</sup> (8)은 시사자, (9)는 수사자를 부각시키고 있다.

‘是……的<sub>2</sub>’ 구문에서 ‘是’는 보통 술어부의 앞에 출현하는데, 때로 예문 (8)과 같이 시사자를 강조할 때에는 주어 앞에 출현할 수도 있다. ‘的’는 일반적으로 문미에 출현하지만 예문 (2)와 (9)처럼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오기도 한다. ‘是……的<sub>2</sub>’ 구문의 목적어에는 일반적으로 (2), (4), (8), (9)처럼 단순명사나 대명사, 고유명사 등 한정적인 성분이 오고, 수량사의 수식을 받는 비한정적인 성분은 올 수 없다.

‘是……的<sub>2</sub>’ 구문에서 ‘是’와 ‘的’의 품사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是’의 품사에 대해 朱德熙는 판단동사로 보았고, 胡裕樹(1962), 黃伯榮(1991), 李敏(2002) 등은 여기부사로 보았다. 다음으로 ‘的’의 품사에 대해 趙淑華(1979), 史有爲·馬學良(1982) 등은 과거 완료나 실현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혹은 시태조사라고 보았다. 그러나 杉村博文(1999)은 동태나 시간과는 관련이 없는 구조조사로 보았는데, ‘是……的<sub>2</sub>’가 과거를 나타내는 것은 V(O)的가 그 선행 성분인 V了(O)를 대응(回指)함으로써 생긴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宋玉柱(1978), 李訥 等(1998)은 여기서, 鄧守信

3) 원인을 강조하는 경우 전체 문장의 주어에는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온다. 그러므로 주어에 예문 (7)처럼 어떤 현상이나 사실을 나타내는 주술구나 동사구가 오기도 한다. 또 만일 ‘是’와 ‘的’ 사이에 오는 동사가 목적어를 가질 경우에는 목적어 뒤에 동사를 한 번 더 써주어야 하며(예를 들면, 她眼睛痛是熬夜熬的.), 이 때 문장의 강세는 중복되는 동사에 두어야 한다. 謝福(2008:46) 참조.

(1979), 張伯江·方梅(1996), 徐傑(2001), 袁毓林(2003) 등은 초점 표지사로 보기도 했다. 이와 같이 ‘是……的<sub>2</sub>’ 구문에서 ‘是’와 ‘的’ 품사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교육문법의 관점에서 보면 ‘是’ 바로 뒤에 나오는 성분이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 되기 때문에 ‘是’는 어기부사로, ‘的’는 사건이 이미 완성되었거나 발생했음을 나타내어 만일 생략하면 시간 표현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동태조사로 보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sup>4)</sup>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1) 我們是兩點半出去的。(우리는 두시 반에 나갔다.)  
 (1') 我們兩點半出去。(우리는 두시 반에 나갈 것이다.)

예문 (1)은 (1')와 같이 ‘是’와 ‘的’를 생략하면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시간 표현에 변화가 생긴다.

예문 (1)-(9)를 통해 볼 수 있듯이 ‘是……的<sub>2</sub>’의 ‘是’와 ‘的’ 사이에 오는 성분으로는 부사어+동사, 주술구, 동사(구) 등이 있으며, 형용사(구), 부사, 조동사 등은 단독으로 출현할 수 없다.<sup>5)</sup> 위의 예문에서는 부각되는 성분인 시간, 장소, 방식, 목적 등이 단독으로 출현했지만, 이러한 성분들이 동시에 한 문장 안에 출현할 때에는 부각시키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是’의 위치를 옮길 수 있다.

- (10) 小王昨天在宿舍裏用手提電腦給我發郵件。  
 (샤오왕은 어제 기숙사에서 노트북으로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a. 是小王昨天在宿舍裏用手提電腦給我發的郵件。[시사자]  
 b. 小王是昨天在宿舍裏用手提電腦給我發的郵件。[시간]  
 c. 小王昨天是在宿舍裏用手提電腦給我發的郵件。[장소]  
 d. 小王昨天在宿舍裏是用手提電腦給我發的郵件。[방식]

4) 王凌雲(2009) 참조.

5) ‘是’와 ‘的’ 사이에 오는 성분의 종류에 따라 ‘是……的<sub>2</sub>’ 구문의 형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어+是+부사어+동사+的 (2) 주어+是+주술구+的 (3) 是+주어+동사+의 +목적어 (4) 주어+是+동사+(목적어+중복동사)+的. 謝福(2010:17) 참조.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是’는 부각시키고자 하는 성분의 바로 앞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예문에서는 부각시키고자 하는 초점이 ‘是’ 바로 뒤에 오는 부사어, 주어, 술어와 같은 통사구조 중의 일부 성분이지만, 때로 ‘是’와 ‘的’ 사이에 오는 전체 성분일 수도 있다.

- (11) 這時，他忽聽一聲驚心的喊叫：“王倬，你被捕了！……”  
 他吃驚地坐起來，不，是兩位人民警察把他揪起來的。  
 (그 때 그는 갑자기 그를 질겁하게 만드는 (인민경찰의)고함소리를 들었다. “왕주어, 넌 체포됐다!……” 그는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그가 놀라 일어난 것이 아니라)두 명의 인민경찰이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운 것이었다.) (杉村博文 1999:56)

위의 예문 (11)에서 ‘是……的<sub>2</sub>’ 구문은 앞의 진술을 수정하는 신정보로서 ‘是’와 ‘的’ 사이에 오는 성분 전체를 부각시키고 있다.<sup>6)</sup>

## 2.2 ‘是’의 생략

‘是……的<sub>2</sub>’ 구문은 구어에서 ‘是’를 생략할 수 있지만, ‘的’는 생략할 수 없다.

- (1') 我們兩點半出去的。(우리는 두시 반에 나갔다.)  
 (2') 我在售票處買的票。(나는 매표소에서 티켓을 샀다.)  
 (3') 我坐火車來的。(나는 기차를 타고 왔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경우에는 구어에서도 ‘是’를 생략할 수 없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www.kci.go.kr

6) 杉村博文(1999:56-57), 許培新(2003:107) 참조.

- (12) a. 這是老師送給我的。(이것은 선생님이 나에게 선물하신 것이다.)  
 b. \*這老師送給我的。
- (13) a. 我和他不是上星期見面的。(나와 그는 지난주에 만난 것이 아니다.)  
 b. \*我和他不上星期見面的。
- (14) a. 這道菜是我做的。(이 요리는 내가 만든 것이다.)  
 b. \*這道菜我做的。

위의 예문 (12)와 같이 ‘這’, ‘那’가 주어로 올 때, (13)과 같이 부정문에서,<sup>7)</sup> (14)와 같이 수사자가 주어로 올 때는 ‘是’를 생략할 수 없다.<sup>8)</sup>

김선희(2013)는 영화의 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是……的<sub>2</sub>’에서 ‘是’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是……的<sub>2</sub>’ 구문을 지도할 때에는 ‘是’를 생략하여 말하는 연습을 병행하고 ‘(是)……的<sub>2</sub>’ 구문으로 표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王凌雲(2009:30)의 조사에 따르면 구어에서는 ‘是’를 생략하면 어기를 더 강하게 하여 화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면어에서는 생략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謝福(2008:39)도 구어에서는 주어 뒤에 일반적으로 휴지를 둘 수 있어 중의가 생기지 않지만, 서면어에서는 어기의 휴지를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是’를 생략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에게 ‘是……的<sub>2</sub>’ 구문을 설명할 때에는 구어에서는 ‘是’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면어에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따로 교수할 필요가 있다.

7) ‘是……的<sub>2</sub>’ 구문의 부정형식은 ‘不是……的’이며, 정반의문문의 형식은 ‘是不是……的’이다.

8) 劉月華等(2001:768-769), 한재균(2009:178) 참조. 그런데 劉月華等은 ‘他臉紅是海風吹的.’와 같이 ‘是’와 ‘的’ 사이에 오는 초점 성분이 원인을 나타낼 때도 ‘是’를 생략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한재균(2009:178)은 동작,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 원인임을 강조하는 ‘是……的’ 구문이 구어의 담화에서는 종종 생략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성분이 초점이 되는 경우는 배제했다.

### 2.3 목적어의 위치

‘是……的’ 구문 중 ‘是……的<sub>3</sub>’ 구문은 목적어가 오더라도 ‘的’를 항상 문미에 놓는 데 반해 ‘是……的<sub>2</sub>’ 구문의 목적어는 ‘的’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올 수 있다.<sup>9)</sup> 특히 ‘是……的<sub>2</sub>’ 구문은 구어에서 목적어가 ‘的’ 뒤에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是……的<sub>2</sub>’ 구문에서 어떠한 보충 성분도 가지지 않은 일음절 동사가 목적어를 동반할 때에는 그 목적어의 음절수에 상관없이 목적어를 ‘的’ 뒤에 놓는 경우가 많고, 동목적 이합사가 ‘是……的<sub>2</sub>’ 구문에 출현할 때에도 ‘的’를 이합사의 중간에 두는 경우가 많다.<sup>10)</sup>

(15) 你什麼時候來的中國? (당신은 언제 중국에 온 겁니까?)

(16) 他是什麼時候結的婚? (그는 언제 결혼했습니까?)

위의 예문 (15)는 일음절 동사인 ‘來’가 목적어를 동반했는데 ‘的’를 목적어 앞에 두고 있고, (16)에는 동목적 이합사인 ‘結婚’이 왔는데 ‘的’를 ‘結’와 ‘婚’ 사이에 두고 있다. 이에 許培新(2003)은 심지어 현대 중국어 구어에서 ‘的’를 목적어 앞으로 전치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的’ 뒤에 출현하는 목적어는 ‘的’ 앞에 출현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량사+명사’의 형식을 가지는 비한정적인 성분은 올 수 없고, 고유명사, 대명사, 단순명사 등의 한정적 성분이 오는데, 일반적으로 대명사가 목적어로 오는 경우는 ‘的’ 앞에 오는 경우가 많다.<sup>11)</sup>

9) 이에 대해 王凌雲(2009:33)은 ‘的’를 목적어의 앞뒤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무표적이고, ‘的’를 목적어의 뒤에만 놓을 수 있는 문장은 유표적이라고 했다.

10) 謝福(2008:40-41) 참조.

11) 김선희(2013:294-295)는 영화 대사에서 인칭대명사 목적어가 ‘的’ 뒤에 사용된 경우가 다량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인칭대명사 목적어가 쓰인 경우 ‘的’의 위치와 관련하여 어떤 언어규칙이 존재하는지는 다량의 언어자료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중국어 교재에서도 목적어가 인칭대명사인 경우 ‘的’의 앞에 쓰인 예문이 많고, 일부 교재에서는 인칭대명사 목적어는 반드시 ‘的’ 앞에만 올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 (17) 是老師批評他的。(선생님이 그를 나무라신 것이다.)  
 (17') 是老師批評他。

‘是……的<sub>2</sub>’ 구문의 목적어 문제에 대해서는 2.4에서 다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한편, 呂必松(1982)과 劉月華 等(2001)은 목적어가 ‘的’ 뒤에 출현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제시하였다.

- (18) 今天中午我們是吃的餃子。 (劉月華 等 2001:762)  
 (오늘 정오에 우리는 만두를 먹었다.)  
 (19) 我是吃的餃子, 不是吃的麵條。 (呂必松 1982:24)  
 (나는 만두를 먹었지 국수를 먹은 것은 아니다.)

위의 예문들은 ‘的’ 다음에 오는 목적어인 수사자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袁毓林(2003)은 목적어를 ‘的’ 뒤에 두면 초점의 범위(focus scope)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위의 예문들이 어색하게 느껴지며 수백만자에 달하는 말뭉치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문을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위의 예문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是……的’ 구문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했다.

- (18') 今天中午我們吃的是餃子。(오늘 정오에 우리가 먹은 것은 만두이다.)  
 (19') 我吃的是餃子, 不是麵條。(내가 먹은 것은 만두이지 국수가 아니다.)

그러나 王凌雲(2009:33)은 袁毓林의 주장에 대해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20) 我是在那家飯館吃的飯。  
 (나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_\_\_\_\_

것이므로 ‘的’ 뒤에 쓰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1) 我是吃的米飯, 他是吃的麵條. (王凌雲 2009:33)  
 (나는 밥을 먹었고, 그는 국수를 먹었다.)

예문 (20)에서 대화 쌍방은 밥을 먹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서 밥을 먹었는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므로 '在那家飯館'이 초점이 되고 '飯'의 초점 지위는 없어진다. 그러나 다음 예문 (21)에서는 '的' 앞에 다른 초점이 없으므로 목적어인 '米飯'과 '面條'가 초점이 된다.

나아가 張斌(2010:603)은 동사의 목적어 자체가 강조하는 대상이 될 때에는 목적어를 '的' 앞으로 둘 수 없고, 반드시 '的' 뒤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 (22) a. 他是買的衣服, 不是買的鞋子. ( 그가 옷을 샀지 신발을 산 것은 아니다.)  
 b. \*他是買衣服的, 不是買鞋子的. (張斌 2010:603)

위의 예문 (22.a)는 '是' 뒤에 초점이 될 만한 성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의 초점은 '的' 뒤에 오는 목적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的'가 목적어 앞에 오는 경우는 예문 (21)이나 (22a)처럼 대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후행절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是' 뒤에도 초점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오고 '的' 뒤에도 초점이 될 수 있는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있다.

- (23) 小王是在上海讀的中學, 在北京讀的大學.<sup>12)</sup> (楊艷 2004:99)  
 (샤오왕은 상하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녔다.)

12) 楊艷(2004)은 평행구조에서의 초점의 층위를 분석하기 위해 '的'가 문미에 오는 A1식과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的'가 오는 A2식 간의 여러 가지 결합을 통해 사람들의 어감을 조사했는데, 그 결합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A2+A2식: 小王是在上海讀的中學, 在北京讀的大學. A1 확장식: 小王是在上海讀中學, 在北京讀大學的. A2+A1식: 小王是在上海讀的中學, 在北京讀大學的. A1+A1식: 小王是在上海讀中學的, 在北京讀大學的. A1+A2식: 小王是在上海讀中學的, 在北京讀的大學. 조사 결과 사람들은 A2+A2식을 가장 자연스럽게 느꼈고, 그 다음 순서는 A1 확장식 > A2+A1식 > A1+A1식이었으며, A1+A2식은 부자연스럽다고 답했다.

(24) 鳳夏是在冬天裏生的第一個孩子，是在夏天裏生的第二個孩子。

(평사는 겨울에 첫째 아이를 낳았고, 여름에 둘째 아이를 낳았다.)

(謝福 2008:33)

위의 예문 (23)에서 ‘是’ 뒤에 초점이 되는 성분인 ‘在上海’, ‘在北京’이 각각 왔고, ‘的’ 뒤에도 초점이 될 수 있는 목적어인 ‘中學’와 ‘大學’가 각각 왔다. 이 문장은 청자가 샤오왕이 이미 고교와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말한 것이므로 ‘在上海’, ‘在北京’이 첫 번째 층위의 대조초점이 된다면, 앞뒤 문맥에서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구정보인 ‘中學’와 ‘大學’는 두 번째 층위의 대조초점이 된다. 예문 (24)도 만일 두 개의 절로 나누지 않고 평사가 겨울에 첫째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 강조하고자 한다면 ‘鳳夏是在冬天裏生第一個孩子的’ 혹은 ‘鳳夏是在冬天裏生的第一個孩子’ 모두 가능하겠지만, 위의 예문처럼 첫째 아이는 겨울에 낳고 둘째 아이는 여름에 낳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면 반드시 ‘的’를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두어야 한다. ‘的’를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두어야 두 가지 초점 성분을 표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3)</sup>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시 정리해 보면 중국어의 기본 형식인 ‘S+V+O’는 문미에 오는 목적어(O)가 문장의 초점이 되지만, ‘是……的<sub>2</sub>’ 구문에서는 통상적으로 ‘是’ 다음에 오는 성분이 초점이 된다. 만일 ‘的’ 뒤에 목적어가 오는 ‘是……的<sub>2</sub>’ 구문에서 ‘是’ 바로 다음에 초점이 되는 성분이 없다면, 즉 ‘S+是+V+的+O’의 형식이라면 목적어 O가 초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병렬복문의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 ‘是’ 뒤에도 초점이 되는 성분이 오고 ‘的’ 뒤에도 초점이 될 수 있는 목적어가 온다면 두 가지 초점이 생길 수 있는데, ‘是’ 뒤에 오는 성분이 일차초점이 되고 ‘的’ 뒤에 오는 목적어가 이차초점이 된다.

www.kci.go.kr

13) 楊艷(2004:99-102), 謝福(2008:33) 참조.

## 2.4 ‘了’자문과의 비교

다음 장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한국인 학습자들은 ‘是……的<sub>2</sub>’ 구문과 ‘了’자문의 용법을 잘 구분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了’는 완료를 나타내고, ‘是……的<sub>2</sub>’도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 사용하는 비슷한 용법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언제 ‘了’를 사용하고 언제 ‘是……的<sub>2</sub>’ 구문을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히 어떤 사건이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때에는 ‘了’를 사용하고, 이미 발생했거나 혹은 설사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화자가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여긴다는 전제 하에 사건의 발생 시간, 장소,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나 언급할 때에는 반드시 ‘是……的<sub>2</sub>’ 구문을 사용해야 한다.<sup>14)</sup> ‘是……的<sub>2</sub>’ 구문은 앞선 대화나 맥락에서 반영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부각시키거나 질문하고 답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럼 ‘了’가 사용된 문장과 ‘是……的<sub>2</sub>’가 사용된 문장에는 어떠한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了’는 전형적인 상표지로서 동태적인 사건을 나타내지만 ‘是……的<sub>2</sub>’ 구문이 사용되면 정태적인 사건을 나타낸다.<sup>15)</sup>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25) A: 你昨天做什麼了? (너 어제 뭐 했니?)  
 B: 我昨天去上海了。(나 어제 상하이에 갔었어.)  
 \*我昨天去上海的。

A가 ‘做什麼’라는 동태적인 사건을 물었을 때 B는 ‘是……的<sub>2</sub>’ 구문으로 답할 수 없다. ‘是……的<sub>2</sub>’ 구문이 정태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 凌璧君(2008:116)은 ‘的’의 기본적인 기능이 ‘관형어+의+명사’의 형식으로 사용되는 구조조사이고, 사물의 성질이나 속성 등의 정태적인 특징을 묘사하는 의미

14) 예를 들면 ‘그가 어제 왔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술할 때에는 ‘他昨天來了.’로 나타내고, ‘그가 온 것은 어제’라는 시점을 강조하고 싶다면 ‘他是昨天來的.’를 선택해야 한다. 呂必松(1982:28) 참조.

15) 張蕾(2006)와 凌璧君(2008) 참조.

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 때 명사를 생략하더라도 ‘관형어+的’는 여전히 명사성 구조이고, 명사성 구조는 당연히 정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상태형용사가 술어로 사용될 때 반드시 ‘的’를 사용하는 것도 ‘的’가 상태형용사에 묘사성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둘째, ‘了’자문은 새로운 담화를 시작할 때 사용될 수 있으나, ‘是……的<sub>2</sub>’ 구문은 새로운 담화를 시작할 때보다는 ‘了’자문의 뒤에 후속문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劉月華 等(2001:770)은 ‘了’가 사용된 동사술어문에서 동작의 발생은 신정보로서 청자에게 전달되므로 종종 시작문(始發句)에 사용되고, ‘是……的<sub>2</sub>’ 구문은 동작의 발생이 화자에게 있어서 이미 구정보가 되기 때문에 후속문(後續句)에 사용된다고 했다. 다음은 劉月華 等이 제시한 예이다.

(26) A: 你姐姐結婚了嗎? (너희 언니 결혼했니?)

B: 結了。(결혼했지.)

A: (是)什麼時候結的(婚)? (언제 결혼했는데?)

B: 前年結的, 都有小孩兒了。(재작년에 결혼했지. 벌써 애도 있는걸.)

A: (是)什麼時候生的小孩兒? (언제 애를 낳았어?)

B: (是)去年生的(小孩兒)。(작년에 낳았지.)

(劉月華 等 2001:770)

위의 예문에서 A는 B의 언니 결혼이라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 질문을 시작할 때 ‘了’를 사용하고, 그 사실에 대한 세부적인 시기를 물어보거나 대답할 때에는 ‘是……的<sub>2</sub>’ 구문을 사용했다. 그 뒤에 B는 A가 모르는 신정보인 아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할 때 다시 ‘了’를 사용했다. 뒤의 후속문에서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구정보가 되고 언제 낳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를 묻고 답했기 때문에 다시 ‘是……的<sub>2</sub>’ 구문을 사용했다.

셋째, ‘了’자문은 일반적으로 문미에 오는 목적어가 정보의 초점이 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是……的<sub>2</sub>’ 구문에서는 문미에 오는 목적어 보다는 ‘是’ 바로 다음에 오는 성분이 일차초점이 되므로 문미초점인 목적어를 질문하고 답할 때에는 ‘是……的<sub>2</sub>’ 구문보다는 ‘了’자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27) A: 你在飯店碰到誰了? (너 호텔에서 누구를 만났니?)

B: 我在飯店碰到小雨了。(난 호텔에서 샤오위를 만났어.)

\*我在飯店碰到小雨的。

위의 예문 중 ‘我在飯店碰到小雨的’가 만일 장소를 묻는 질문(你在哪兒碰到小雨的?)에 대한 응답이면 문장은 성립하지만, 누구를 만났는지 목적어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므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넷째, ‘了’가 사용된 문장의 목적어는 한정적이거나 비한정적인 성분이 모두 올 수 있지만, ‘是……的<sub>2</sub>’ 구문의 목적어에는 반드시 한정적인 성분이 와야 한다. ‘是……的<sub>2</sub>’ 구문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술어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대화 쌍방이 모두 알고 있거나 앞에서 이미 출현한 적이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是……的’ 구문의 목적어도 구정보이기 때문에 ‘一+양사+명사’ 혹은 ‘一些, 某個’ 등의 비한정적인 성분이 목적어에 올 수 없는 것이다.

(28) a. 昨天我是在飯店碰到這個人的。

(어제 나는 호텔에서 이 사람과 마주쳤다.)

b. \*昨天我是在飯店碰到一個人的。

c. 昨天我在飯店碰到了一個人。

(凌璧君 2008:116)

(어제 나는 호텔에서 어떤 사람과 마주쳤다.)

만일 비한정적인 성분을 목적어로 사용하고 싶다면 위의 예문 (28.c)와 같이 ‘是……的<sub>2</sub>’ 구문이 아닌 ‘了’자문을 사용해야 한다.<sup>16)</sup>

지금까지는 ‘是……的<sub>2</sub>’ 구문의 통사적 특징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다음 장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많이 범하는 ‘是……的<sub>2</sub>’ 구문의 오류를 분석하고자 한다.

www.kci.go.kr

16) 凌璧君(2008:116) 참조.

### 3. ‘是……的’<sub>2</sub> 구문의 오류분석과 교육방안

‘是……的’ 구문은 한국어에 없는 문장의 형식으로 한국인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형 중의 하나이다. 특히 세 가지 ‘是……的’ 구문 중 ‘是……的’<sub>2</sub> 구문은 초급 단계에서 배우는 어법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HSK 작문말뭉치’에서 한국인의 ‘是……的’<sub>2</sub> 구문 오류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것은 ‘的’의 누락(102회), ‘是’의 누락(52회), ‘了’의 대치(52회)이다. 張意(2011:19)는 이 외에도 ‘是……的’<sub>2</sub>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따로 분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的’의 누락과 ‘是……的’<sub>2</sub>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오류는 비슷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的’의 누락으로 한 데 묶어 분석하고자 한다.

#### 3.1 ‘的’의 누락

‘的’의 누락 오류는 일반적으로 한국인 학습자가 ‘是……的’<sub>2</sub> 구문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어 뒤에 ‘是’만 쓰거나 아예 ‘是……的’<sub>2</sub> 구문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오류이다. 다음은 ‘HSK 작문말뭉치’에 수록된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문이다.

(29) \*我是1970年3月15日出生[ ]。17)

(30) \*我和他是在大學二年級的時候相識[ ], ……。

(31) \*我們[ ]在念中學時認識[ ]。

17) 예문 (29)부터 인용된 오류문은 실제 ‘HSK 작문말뭉치’에서는 ‘是……的’<sub>2</sub> 구문과 관련된 오류 외에 다른 오류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논의의 편의상 다른 오류는 일부 수정하여 실었음을 밝힌다.

위의 예문 (29)와 (30)은 주어 뒤에 ‘是’만 쓰고, (31)은 앞뒤 문맥상 ‘是……的’ 구문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속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의 구체적인 시간, 장소, 주체, 원인, 방식 등을 표현할 때에는 반드시 ‘是……的’ 구문을 사용해야 하는데, ‘是……的’ 구문을 단순히 강조구문이라고 배운 학습자들은 ‘是……的’ 구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王光全(2003:19)은 심지어 ‘是……的’ 구문은 강조구문이 아니며,<sup>18)</sup> 이를 강조구문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많은 중국어 학습자들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는 ‘是……的’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是……的’ 구문은 특정 상황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구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국어 교재인 《한어구어》, 《신공략 중국어》, 《맛있는 중국어》, 《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등에서 ‘是……的’ 구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미 발생한 동작의 시간, 장소, 방식 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구문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지, 이미 발생한 동작의 시간, 장소,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나 설명할 때에는 ‘是……的’ 구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교재는 한 권도 없다. 이로 볼 때 ‘是……的’ 구문을 강조구문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는 교재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3.2 ‘是’의 누락

‘是’의 누락 오류는 한국인 학습자가 구어와 서면어에서의 차이점을 숙지하

18) 王光全은 ‘是……的’ 구문을 강조 구문이라고 본다면 이에 대응되는 형태의 비강조구문이 존재해야 하는데 존재하지 않으며, 강조구문은 화자가 특별히 주목하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是……的’ 구문은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도 이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是……的’ 구문은 강조구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 못하여 생긴 오류라고 볼 수 있다. ‘HSK 작문말뭉치’에서는 ‘是……的’ 구문에서 ‘是’를 생략한 경우는 일괄적으로 오류문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HSK 작문말뭉치’가 고급 HSK에 참가한 학생들의 작문을 수집한 말뭉치로서 구어가 아닌 서면어 형식이기 때문이다.

- (32) \*我從小時候到現在〔 〕在農村長大的。  
 (33) \*因為其實這件事〔 〕在死者的要求下進行的, ……。  
 (34) \*……, 我到現在〔 〕靠你們的辛苦勞動生活下來的。  
 (35) \*人人說, 這個問題〔 〕從社會發展的過程中突出來的。

구어에서는 주어 뒤에서 휴지를 둘 수 있어서 중의가 생기지 않지만 서면어에서는 중의를 방지하기 위해 ‘是……的<sub>2</sub>’ 구문에서도 ‘是’를 사용한다. 그러나 회화수업에서 ‘是……的<sub>2</sub>’ 구문에서 ‘是’는 생략할 수 있다고 배운 학습자들은 서면어에서도 종종 ‘是’를 생략하는 오류를 범한다.

김선희(2013:289)는 한국에서 출판되는 교재에서는 ‘是’의 생략 문제를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문 대화문 연습 시 ‘是’를 생략하여 말하는 연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是’는 구어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면어에서는 생략되지 않으므로 말하기 연습에서는 ‘是’를 생략하여 ‘是……的<sub>2</sub>’ 구문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쓰기 연습에서는 ‘是’를 생략할 수 없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3.3 ‘了’의 대치

마지막으로 ‘是……的<sub>2</sub>’ 구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은 ‘了’의 대치 오류인데 이는 ‘是……的<sub>2</sub>’ 구문이 ‘是……的<sub>3</sub>’ 구문과 관련된 오류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sup>19)</sup> 이는 한국인 학습자가 완료, 변화의 ‘了’를 학습한

19) ‘是……的<sub>2</sub>’ 구문에서 ‘了’의 대치 오류는 52회 출현했는데, ‘是……的<sub>3</sub>’ 구문에서는 단 6회

후에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는 무조건 ‘了’로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 하는 언어 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의 부정적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了’의 대치 오류는 앞에서 ‘是’를 사용한 후 문미에 ‘的’를 첨가해야 하는데 ‘了’로 대치한 경우, ‘是……的<sub>2</sub>’를 사용해야 하는데 ‘了’로 대치한 경우가 해당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오류의 예문이다.

- (36) \*我是韓國的忠北大學畢業了。  
→我是韓國的忠北大學畢業的。
- (37) \*我是從高一開始抽了烟。  
→我是從高一開始抽的烟。
- (38) \*而且在中國留學當中經歷了。  
→而且是在中國留學時經歷的。
- (39) \*他從來把水自己從山底下挑上來了。  
→他從來是把水自己從山底下挑上來的。

위의 예문 (36)과 (37)은 앞에서 ‘是’를 사용한 후 문미에 ‘的’를 첨가해야 하는데 ‘了’로 대치한 경우이고, (38)과 (39)는 ‘是……的<sub>2</sub>’를 사용해야 하는데 ‘了’로 대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앞에서 이미 ‘是……的<sub>2</sub>’ 구문과 ‘了’자문과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자세히 언급했기 때문에 위의 예문이 오류문인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是……的<sub>2</sub>’ 구문과 ‘了’자문의 대치 오류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교재의 편찬이나 교사의 지도 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了’자문과 ‘是……的<sub>2</sub>’ 구문의 차이점을 상황을 예로 들어 연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www.kci.go.kr

밖에 출현하지 않았다. 전체 오류의 수에서 ‘是……的<sub>3</sub>’ 구문의 오류가 ‘是……的<sub>2</sub>’ 구문의 오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了’의 대치 오류는 ‘是……的<sub>2</sub>’ 구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오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張意(2011:19) 참조.

### 3.4 ‘是……的<sub>2</sub>’ 구문의 교육방안

3.1에서 밝혔듯이 ‘是……的<sub>2</sub>’ 구문과 관련한 오류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是……的<sub>2</sub>’ 구문을 사용해야 하는지 한국인 학습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국어 교재에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是……的<sub>2</sub>’ 구문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출판되는 거의 모든 중국어 교재에서 ‘是……的<sub>2</sub>’ 구문을 강조구문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특별히 강조의 의도가 없으면 굳이 ‘是……的<sub>2</sub>’ 구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게 되므로 교재의 내용에서 강조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과거에 발생한 동작의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방식, 대상, 원인 등을 질문하고 답할 때 반드시 써야 하며, 또한 이러한 성분들을 부각시켜 표현하고자 할 때에도 ‘是……的<sub>2</sub>’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다.

또한 ‘了’자문과 ‘是……的<sub>2</sub>’ 구문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구문인데 교재에서 구체적인 용법상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므로 ‘是……的<sub>2</sub>’ 구문은 ‘了’자문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점에 비취볼 때 교재의 어법사항 배열에서 ‘是……的<sub>2</sub>’ 구문은 ‘了’자문 뒤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아가 대부분의 중국어 회화 교재나 문법서에서는 단문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단문만으로는 학습자들이 언제 ‘了’자문을 사용하고 언제 ‘是……的<sub>2</sub>’ 구문을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상적인 설명과 단문 위주의 예문보다는 앞선 예문 (26)처럼 상황을 만들어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교수자는 ‘是……的<sub>2</sub>’ 구문의 사용 시 구어에서 ‘是’는 종종 생략하지만 ‘的’는 생략할 수 없고, 서면어에서는 ‘是’와 ‘的’를 모두 생략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특히 작문 시 ‘是’를 생략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是……的<sub>2</sub>’ 구문에 목적어가 올 경우 ‘的’는 목적어의 앞이나 뒤에 모두 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 학습자는 ‘的’가 문미에 오는 문장만을 사용하고, 목적어가 문미에 오는 문장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구어

에서 오히려 목적어가 문미에 오는 문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是……的<sub>2</sub>’ 구문을 사용한 말하기 연습에서 ‘的’를 목적어 앞에 놓는 문형의 연습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외형상 ‘是……的<sub>2</sub>’ 구문과 비슷하지만 주어에 대한 속성이나 판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是……的<sub>1</sub>’ 구문이 ‘是……的<sub>2</sub>’ 구문보다는 문법적인 형식이 덜 복잡하기 때문에 학습 단계상 ‘是……的<sub>1</sub>’ 구문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 ‘是……的<sub>2</sub>’ 구문을 학습하게 된다.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중국인의 사용 빈도는 더 높으나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是……的<sub>3</sub>’ 구문을 학습하게 되는데, 모두 ‘是’와 ‘的’를 사용하므로 학습자들이 세 구문의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是……的<sub>1</sub>’ 구문과 ‘是……的<sub>2</sub>’ 구문은 일정한 상황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형식이라면 ‘是……的<sub>3</sub>’ 구문은 통사적인 필요가 아니라 화용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세 구문은 ‘是’와 ‘的’의 생략이나 부정의 형식, 목적어의 위치 이동 등에서도 차이점이 나타난다.<sup>20)</sup> 그러므로 각각의 ‘是……的’ 구문을 교수할 때에는 그 전에 학습한 구문과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학습자들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4.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是……的<sub>2</sub>’ 구문의 통사적인 특징과 한국인 학습자들이 주로 범하는 오류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사적인 면에서 ‘是……的<sub>2</sub>’ 구문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서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了’자문과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있고, 목적어의 어순이나 ‘是’와 ‘的’의 통사적 특징과 생략, ‘是’와 ‘的’ 사이에 오는 성분이 다른 ‘是……的’ 구문과도 차이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

20) 세 가지 ‘是……的’ 구문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전기정(2014)를 참고하기 바람.

한 특징을 잘 인지하지 못한 한국인 학습자는 종종 오류를 범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的’의 누락, ‘是’의 누락, ‘了’의 대치 등 세 가지 오류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고의 분석에 비추어 ‘是……的<sub>2</sub>’ 구문의 학습단계를 초급·중급·고급단계로 나눈다면 초급단계에서는 ‘了’자문과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언제 반드시 ‘是……的<sub>2</sub>’ 구문을 사용해야 하는지 주지시킨다. 예문은 ‘是……的<sub>2</sub>’ 구문에서 출현빈도도 높고 문장구조도 비교적 간단한 장소, 시간과 관련한 부사어가 출현하는 문장을 선택하되 단문이 아닌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상황 예문을 들어 학습자들이 언제 ‘是……的<sub>2</sub>’ 구문을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중급단계에서는 ‘是’의 위치 및 생략 문제, 목적어의 어순과 형식적 특징 등에 관해 설명한다. 예문 또한 초급단계보다는 난이도를 높여 방식, 목적, 시사자 등을 부각시키는 문장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고급단계에서는 문장의 구조가 비교적 까다로운 원인이나 수사자가 초점이 되는 ‘是……的<sub>2</sub>’ 구문에 대해 설명하고, ‘是……的<sub>2</sub>’ 구문이 다른 두 가지 ‘是……的’ 구문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여 설명한다.

본고는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HSK 작문말뭉치’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HSK 작문말뭉치’는 서면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고급 HSK에 응시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중급 단계 이상 학습자들의 오류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초급 단계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까지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급 단계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말뭉치가 구축된다면 초급부터 고급 단계까지 아우르는 ‘是……的<sub>2</sub>’ 구문의 오류 양상에 대한 전면적인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 參考文獻 〉

- 김선희(2013), <초급단계 ‘(是)……(的)’구문의 지도>, 《중국어언어연구》, 제46집.
- 김지나(2012), <“是……的”구조에 대한 연구>, 《동아인문학》, 제21집.
- 전기정(2014), <‘是……的’구문의 특징과 오류분석>, 《중국어문학지》, 제47집.
- 정현애(2008), <‘是~的’구문의 실제와 재인식>, 《중국어교육과 연구》, 제8호.
- 한재균(2009), <“是……的”구의語用分析>, 《중국어문학논집》, 제54호.
- 郭 銳(2000), <表述功能的轉化和“的”字的作用>, 《當代語言學》, 第1期.
- 金立鑫(2005), <“是……的”、“是”和句尾“的”的功能及其句法條件>, 《對外漢語教學虛詞辨析》,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年玉萍(2000), <試析“是……的”句式>, 《寶雞文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 鄧守信(2009), 《對外漢語教學語法(修訂版)》, 臺北: 文鶴出版有限公司.
- 呂文華(1981), <主語是受事的“是……的”句>, 《漢語學習》, 第5期.
- 呂叔湘(1979), 《漢語語法分析問題》, 北京: 商務印書館.
- \_\_\_\_\_(2003),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 呂必松(1982), <關於“是……的”結構的幾個問題>, 《語言教學與研究》, 第4期.
- 魯健驥(1994), <外國人學漢語的語法偏誤分析>, 《語言教學與研究》, 第1期.
- 陸丙甫(2003), <“的”的基本功能和派生功能>, 《世界漢語教學》, 第1期.
- 凌璧君(2008), <句尾“的”的句法語用分析>, 《語文學刊》, 第5期.
- 孟建安(2001), <“是……的”格式中的隱現情況考察>, 《華南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期.
- 木村英樹(2003), <“的”字句的句式語義及“的”字的功能擴展>, 《中國語文》, 第4期.
- 史冠新(2006), <對外漢語教學中的句式教學研究>, 《山東社會科學》, 第4期.
- 謝 福(2008), 《外國學生“是……的”句習得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_\_\_\_\_(2010), <基於語料庫的留學生“是……的”句習得研究>, 《語言教學與研究》, 第2期.
- 杉村博文(1999), <“的”字結構、承指與分類>, 《漢語現狀與歷史的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徐 傑(2003), <主語成分、話題特征及相應語言類型>, 《語言科學》, 第1期.
- 石毓智(2000), <論“的”的語法功能的同一性>, 《世界漢語教學》, 第1期.
- 徐陽春(2003), 《關於虛詞“的”及其相關問題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 \_\_\_\_\_. 徐傑(2001), <漢語史上疑問形式的類型學轉變及其機制>, 《中國語文》, 第5期.

- \_\_\_\_\_(2005), <論判斷、焦點、強調與對比之關係 - “是”的語法功能和使用條件>, 《語言研究》, 第4期.
- 宋玉柱(1978), <關於“是……的”結構的分析>, 《天津師院學報》, 第4期.
- \_\_\_\_\_(1981), <關於時間助詞的“和”來着>, 《中國語文》, 第4期.
- \_\_\_\_\_(1996), 《現代漢語語法論集》,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 施家煒(1998), <外國留學生22類現代漢語句式的習得順序研究>, 《世界漢語教學》, 第4期.
- 沈敏(2013), <“是……的”句中“是”字的省略問題研究>, 《齊魯師範學院學報》, 第2期.
- 楊春雍(2004), <對外漢語教學中“是……的”句型分析>, 《雲南師範大學學報》, 第5期.
- 楊艷(2004), 《現代漢語“是”字結構與語用量研究》, 上海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 艾蘭(2006), <“是……的”結構的兩種分析及其區分方法>, 《廣西師範學院學報》, 第27卷.
- 倪蘭(2002), <“是……的”結構話語功能>, 《語文學刊》, 第3期.
- 余足雲(2003), <“是……的”句式的比較與系統分析>, 《阿壩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3期.
- 王光全(2003), <過去完成體標記的“在”在對話語體中的使用條件>, 《語言研究》, 第4期.
- 王凌雲(2009), 《“是……的”句研究及其在對外漢語教學中的應用》,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 牛秀蘭(1991), <關於“是……的”結構句的賓語位置問題>, 《世界漢語教學》, 第3期.
- 袁毓林(2003), <句子的焦點結構及其對語義解釋的影響>, 《當代語言學》, 第2期.
- \_\_\_\_\_(2003), <從焦點理論看句尾的“的”的句法語義功能>, 《中國語文》, 第1期.
- 劉麗寧(2003), 《亞洲地區漢語學習者“是”字句習得情況調查與研究》, 暨南大學碩士學位論文.
- 劉相臣(2004), <“是……的”的“是”格式中“是”的性質和用法探討>, 《語文學刊》, 第2期.
- 劉月華等(2001),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 李訥等(1998), <從話語角度論証語氣詞的“的”>, 《中國語文》, 第2期.
- 李立成(1999), <自指的“的”字短語>, 《語言教學與研究》, 第3期.
- 李敏(2002), <談談動態助詞的“的”的用法>, 《聊城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期.
- 李貞淑(2005), 《韓國留學生口語“是”字句的考察與分析》, 北京語言大學碩士學位論文.
- 李向榮(2012), 《基于“HSK動態作文語料庫”的韓國學習者“是”字句偏誤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 張蕾(2006), 《“是……的”句句法、語義和語用三個平面的分析研究》, 上海外國語大學碩士學位論文.
- 張寶林(1994), <“是……的”句的歧義現象分析>, 《世界漢語教學》, 第1期.
- 田泉(1996), <“是……的”合用及單用非句法功能初探>, 《漢語學習》, 第5期.

- 齊滬揚·張秋杭(2005), <“是……的”句研究述評>, 《廣播電視大學學報》, 第4期。
- 趙淑華(1979), <關於“是……的”句>, 《語言教學與研究》, 第1期。
- 朱德熙(1978), <“的”字結構和判斷句>, 《現代漢語語法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 周有斌(1992), <“是”字句研究述評>, 《漢語學習》, 第6期。
- 陳俊光(2008), 《對比分析與教學應用(修訂版)》, 臺北: 文鶴出版有限公司。
- 韓 梅(2005), <“是……的”句的句法語義分析>, 《東疆學刊》, 第2期。
- 許培新(2003), <“是……的”結構句的句法、語義分析>, 《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期。
- 侯 穎(2004), <“是……的”結構的語義角色及其焦點指派>, 北京語言大學研究生學位論文。

### < 中文提要 >

“是……的”結構是中國人的使用頻率較高的句式之一，也是韓國人的偏誤頻率較高的句式之一。“是……的”結構可分為三大類：表示判斷的“是……的<sub>1</sub>”句，表示強調的“是……的<sub>2</sub>”句，表示肯定語氣的“是……的<sub>3</sub>”句。其中本文把討論的重點放在“是……的<sub>2</sub>”句，首先從理論方面考察“是……的<sub>2</sub>”句的特点，然後對韓國人的偏誤情況進行分析。

在句法特點方面，本文討論“是……的<sub>2</sub>”句的中間成分、“是”的省略、賓語的位置等問題，然後還與“了”字句進行比較。在偏誤分析方面，本文重點討論“的”的缺省、“是”的缺省、與“了”字句的混用等問題。從句法方面對“是……的<sub>2</sub>”句進行本體研究，可以為“是……的<sub>2</sub>”句的教學及偏誤分析提供理論依據，對“是……的<sub>2</sub>”句進行偏誤研究，可以為對韓漢語教學及教材編寫提供幫助。

關鍵詞：“是……的”結構，“是……的<sub>1</sub>”句，“是……的<sub>2</sub>”句，“是……的<sub>3</sub>”句，“了”字句，偏誤分析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 2014. 9. 30. | 2014. 10. 20. | 2014. 11. 7. | 2014. 11. 18. | 2014. 11. 30. |